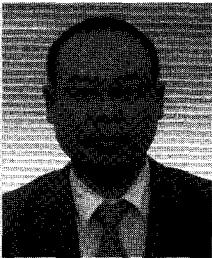


# 국내 식품 용기 문화의 새장 마련

## 국제적 종합 포장회사 도약 준비



**김성원**  
(주)효성 패키징퍼포먼스 유닛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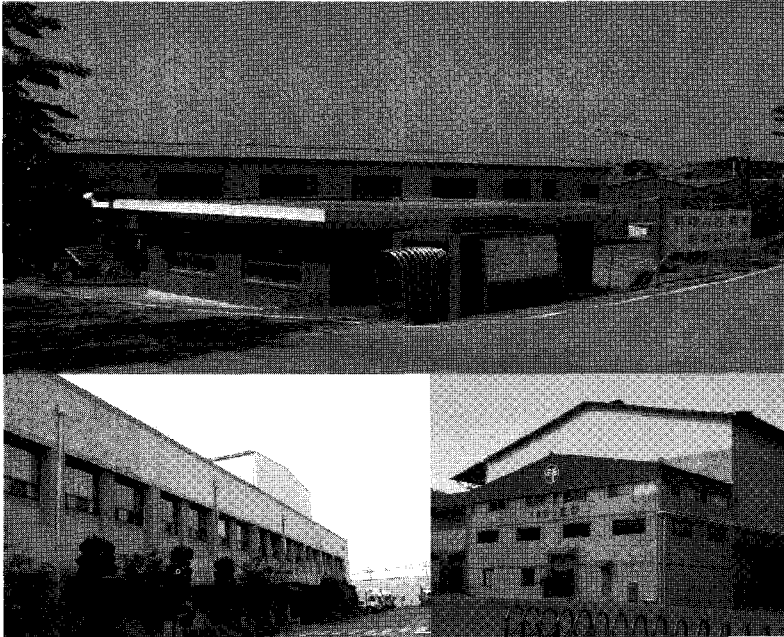
지난 20여년간 축적된 기술력과 고객 지향 영업 메카니즘을 바탕으로 국내 식품용기 문화의 새장을 연 (주)효성.

1979년 PET 용기 생산을 시작한 이래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FDA는 물론 코카콜라, 펩시콜라, 세븐업 등 세계적인 음료업체로부터 품질과 안정승인을 획득, 국내 최대 음료수 용기 생산회사로서 그 위상을 확립해 가고 있는 (주)효성의 패키징 퍼포먼스유닛(대표이사 김성원)를 찾았다.

급변하는 시장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끊임없는 신제품 개발 노력과 최첨단 설비를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국제적 종합 포장회사로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효성은 대전, 진천의 두 메인 공



▲ 효성의 생산제품들



◀ PET 용기를 생산하고, 있는 (주)효성의 덕산, 대전, 양산 공장 전경

장을 중심으로 광혜원, 양산 등 6개의 특화된 공장에서 PET 용기를 생산하고 있다.

지난 1996년 일본, 중국 등 해외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 일본에 PET 용기 및 Preform을 수출하고 있으며 중국 북경에 공장을 설립하여 현지에서 생산, 판매하는 등 해외 신시장 개척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효성은 투명하고 표면 광택성이 뛰어난 PET 레진을 사용하며 뛰어난 성형성과 낮은 AA함유량의 PET 용기 레

진 개발에 전념하고 있으며 최적의 PET 용기를 생산하기 위해 다양한 무게와 디자인의 프리폼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내용물의 특성에 따라 내압병, 내열병, 내열압병, 상압병 등 다양한 종류의 PET 용기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효성은 지난 2002년 특수 PET 용기인 맥주용 PET, 온장고용 PET 등을 개발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일본에서는 98년부터 온장고용 PET를 개발, 매년 꾸준한 수요 증가를 보인바 있는

온장용 PET를 국내 최초로 효성이 개발함으로써 포장용기 문화의 새장을 열었다.

일반 PET에 비해 온장고용 PET는 외부에 산소를 차단하는 물질을 5% 섞어 용기의 내용물을 보호하는데 탁월하다.

특히 효성은 용기가 투명하면서 산소 차단에 효과적인 멀티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올해부터 출시할 예정이다.

멀티 기술은 기존에 쓰였던 블렌딩 기술에 비해 산소차단이 우수하여 2~3주일 동안 내용물 보호가 가능하다.

## Hyo Sung

효성의 야심찬 또하나의 기술인 맥주용 PET는 국내 최초로 효성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데 성공하여 하이트맥주에 공급하고 있다.

이탈리아 PET병 반제품을 수입해 사용하는 타사와 달리 독자적으로 기술 개발하여 맥주시장에 새장을 연 효성은

PEN 등 기능성 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상의 패키징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되고 이를 인정 받는다”라는 비전을 토대로 고객만족을 꾀하고 있는 효성은 국내 M/S 1위(年 12억본), 국내 최대 생산능력(年 22억본), 국내 최다 품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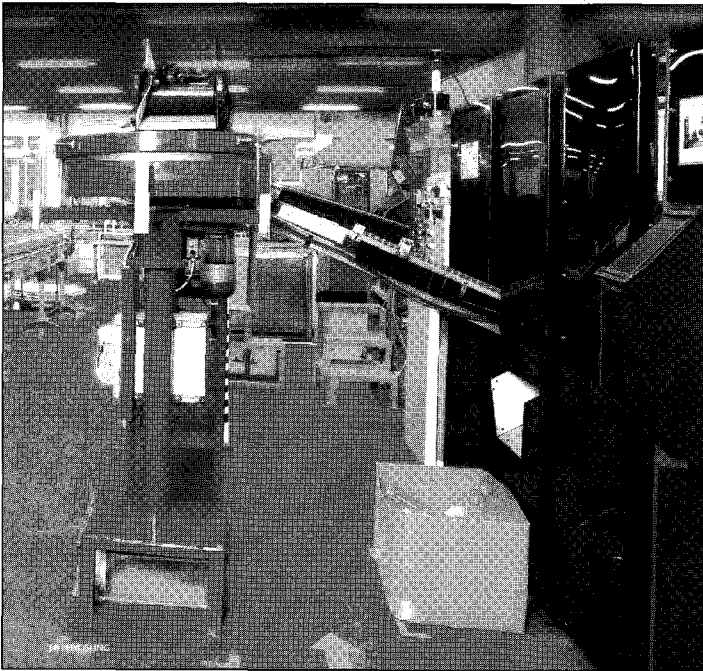
생산 능력 보유, 국내 최고 R&D 인력 및 설비보유, 일본 수출 누적 10억본 달성하는 등 국내 PET 용기 산업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효성은 PET 레진 개발용 Pilot 설비, 고상 중합기, PEM 사출기, Blowing M/C 이외에 정밀 분석을 위한 다수의 기기를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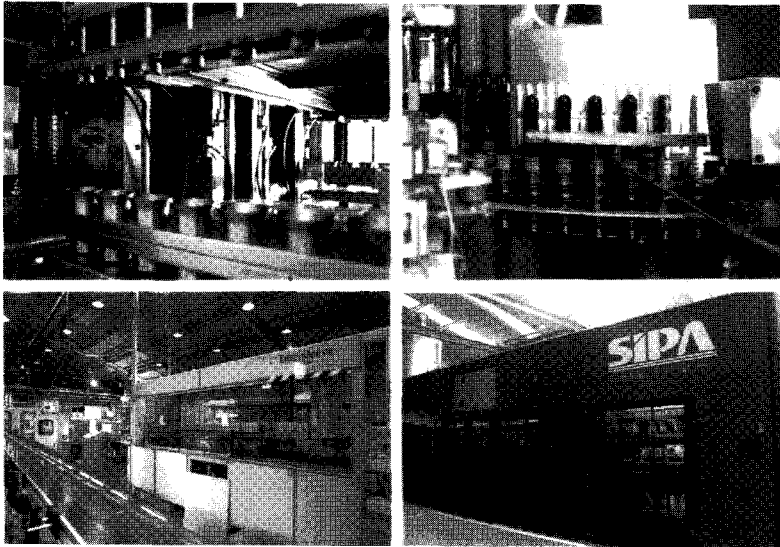
특히 분석센터는 KOLAS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PET 뿐만 아니라 나일론 등 각종 플라스틱 관련 정밀 분석이 가능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기계 및 화학공학을 전공한 석박사 연구팀들은 각종 첨단 장비와 데이터 베이스 활용을 통해 해외 및 국내 기술 동향 파악과 분석을 통한 신기술력 확보로 용기의 선진화에 앞장서고 있다.

투명한 경영을 토대로 정직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는 효성 패키징 퍼포먼스유니트의 김성원 사장은 “고객들에게 품



▲ (주)효성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설비



◀ 공장 내부 사진

질적으로 인정받고 제품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효성은 품질 검사가 매우 까다로운 일본에 제품을 수출하면서 국제적으로 품질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효성은 고객 요구 품질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 품질관리에 남다른 노력을 보이고 있다.

무검사 입고 시스템 확보, A급 설비관리 기준정립 및 표준화와 고장 Tracking 체제를 통한 설비 안정화, 생산/관리업무 표준화 등 최고 수준의 제품 공급을 목표로 품질관리를

해오고 있다. 롯데칠성, 해태음료, 코카콜라, 웅진식품, 범양식품, 동아오츠카 등 14개 업체가 주요 고객인 효성은 가격, 품질, 납기, 서비스의 제고를 통해 최고의 공급업자로 인정받고 있다.

“포장산업이 발전을 거듭하려면 가격경쟁에서 품질경쟁으로 질적인 차원에서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는 김 사장은 “외국기업과의 경쟁을 통한 기술력 확보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덧붙여 “한국포장협회에서는 업계간의 올바른 경쟁을 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용물이 있어도 담을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무용지물(無用之物)일 뿐이라며 포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김 사장은 이런 중요한 업무를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고 고객의 입장에 서서 제품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효성의 식구들은 발빠른 시대흐름속에 또한번의 새로운 포장용기 문화를 열기 위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며 고객만족을 꾀하고 있다. [ko]

이한일 기자